☞ 25면에서 계속

니다만,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믿고 맡겨라, 공부해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오 개월이 지난 오늘날 저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부부간에 갈등도 없어지고, 가족 간의 화합도 생기고 사업도 상당히 번창해서 이제 연간 매출액이 몇 십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적 기반도 다졌습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후일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깨움이 부족한 분들에게 사례로 발표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러면 주인공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설법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그간의 의심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잘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욕심 갖는다면 정말 부처가 못 돼



그림 · 최주현

저희 인간은 우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들이 자신과 능력을 잘 찾기 위해서는, 우주와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깨닫게 됨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스님께서 우주와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또 여기 힘이 있다면 그 에너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구라는 가설은 본래 돼 있기에 근본에 맡겨놓고 인의롭게 대하면 가족 모두 밝아지게 돼 있어**

▲스님: 만약에 우주가 발전소라면, 이렇게 대치를 해보는 겁니다. 우주가 발전소라면, 발전소를 우주라고 한다면 인간은 바로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아니 되고, 소비자가 없어도 아니 되고, 그 소비자에게 배려를 해주는 능력 그 자체가 없어도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될 수 있게끔 용도에 따라서 골어쓰는 데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에너지라는 이름이 생긴 거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에너지라는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은 발전소라면 거기에서 그 전력을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쓰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사람의 그 능력과 발전소와 둘이 아니게 같이 직결이 돼있으니까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꺼내 쓰고 크면 큰 대로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꺼내 쓸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한치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도 가지고 있고요.

▲질문자5: 잘 알겠습니다.

▲질문자6: 오늘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바보가 여기 나와서 스님을 뵙습니다. 오늘 질문에 좋은 가르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4일 전에 열반에 드신 조계종 이성철(李性徹) 큰스님의 81년 1월 달 종정 취임 때 제 일성으로 하신 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체 삼라만상이 모두 다 법신체(法身體)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중생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법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도 인연이 다하시어 이제 열반의 길에 드셨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인연이 다해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저는 불현듯 나를 되돌아보기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큰스님의 깊으시고 지극하신 자비 밑에서 20년을 선원의 수위로서 지내왔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인연이 다 되어 가시는 성철스님의 열반을 보고서 아이고! 나 이거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님의 밑을 떠나서 인연이 다 되어갈 때는 틀림없이 나는 지옥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가 20년 만에 용기를 내서 오늘 처음으로 스님에게 여쭙습니다. 큰 가르침 주십사 하고 여쭙겠습니다.

하나, 우리 중생들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현실 속에서 물질에 매달려가지고 허상에 매달리고 쫓기고 찾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또, 저희들이 바깥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으뜸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선지식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그 계기를 뚜렷이 가질 때 공부의 으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계기를 용케도 오늘 잡았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계기로 하나 찾았고, 또 오늘 여기 나와서는 스님께서 이 무지중생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진리를 한마디로 요리를 해서 딱 깨우쳐줄 수 있는가, 맛을 내게 넣어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두 번 째 계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보다도, 나는 20여 년을 스님 밑에서 공부해 왔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님을 뵈옵고 좋은 가르침 받고 했는데, 오 년 전에 온 아우님이나 6개월 전에 온 아우님이 그만 주인공을 맞을 보았다 하니, 전 그만 걱정이 태산같고 이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대중 웃음)

## 몸도 마음도 내 것 아니니 쩔쩔매지 말고 놓고 사세요

스님께서는 항상 이 한마음의 도리로써 저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절대 생명이요, 그리고 공존의 생명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하고, 인간을 초월해서 신령하다. 너무 크기 때문에 허공과 같고 무(無)다. 항상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놔라. 그리고 여여하게 되돌려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그런데 저는 20년 간 듣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스님의 말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모두 내 도반들의 말로 들리지 제 말로는 하나도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세 가지 계기를 잡은 김에 스님께서 너는 인연 없는 자식이니 이제 수위 자리도 그만두고 나가서 죽든지 떠나든지 . . 이 말씀을 오늘 한마디 해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죽지 않고 달아나기 싫으면 공부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왔습니다. 좀 크게 꾸지람 주십사 하고 나왔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본래 말입니다. 본래 인생은 온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누구 말마따나 서까래는 서까래대로 쓸 수 있고, 기둥은 기둥대로 쓸 수 있고, 포함해서 새끼손가락도 없으면 병신이듯이 우리 전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한생각을 잘 하셨다면 그대로 해나가시면 되겠죠. 뭐 그 길게 생각하고 짧게 생각하고, 또 오래 됐고 오래 되지 않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니까 그저 ..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자리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 (대중 웃음)

▲질문자6: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다 유리하게끔만 하시지 지어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7: 스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십 년 간 다녔지마는 불교의 진수를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광로보다 더 확실하게 놓고 갈 수 있는 주인공 자리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가족이 지금 손녀까지 여섯 명입니다마는 저는 마음자리를 놓고 잘 돌아가는데 딴 식구들은 어떤 때 보면, 나가 볼 때에 아직까지 좀 걸리는 부분이 보일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조용할 때 한번씩 가솔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마는 아직 제가 아마 도량이 부족해서 제 마음을 가족들한테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께, 어떻게 하면은 제 그릇을 좀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여쭤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항상 식구들한테도,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하든가 빗나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즉 말하자면은 그쪽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벌써 식구라는 가설이 돼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가설이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놔도 그 상대방 마음자리까지 다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한테 모든 거를, 저 사람이 저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놓고 난 뒤에는 인의롭고 부드럽게 말을 해준다면 상대방도 아주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7: 그리고 제가 참 스님 앞에서 뭐 나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일갑자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과거는 한생각에 다 놓았습니다. 오늘 스님 앞에 와서 이 질문까지 하게 됐는데 이 편안한 마음을 내세에도 가지고 갈 수 있을런지요?

▲스님: 만약에 오늘 남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거운 겁니다. 그런 인연을 맺었다면은 더불어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빈 손으로 모두 돌봐주게 돼 있습니다. 없는 손이 와서 돌봐주게 되고, 또 없는 손이 있는 손으로 둘이 아니게 포함이 되고 또 귀인이 돼 가지고 다 돌봐주게 되는 겁니다. 가고 오는 족족 그렇게 돌봐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모두 모르셔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체가 다 음파가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끔 하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러고도 내 마음의 다스림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에게 통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통하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인의롭고 자유스럽고 슬기롭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고가 다가오고, 죽을 병고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하세요.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나-노 파동명상 요법을 알면 **당신도 영혼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명상-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명상전생 특강 내용**

(1) 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薦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魂)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명상
제 3자가 명상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명상 파동요법
사랑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魂)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윤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